

제 2 편

본당 설립과 정착

I. 본당 설립 과정

1. 대구대목구 설정과 논란

박해가 끝난 이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한국 교회의 교세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한반도 전역과 간도지방을 조선교구(조선대목구)라는 하나의 체제로 사목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혔다. 자연스럽게 교구 분리가 거론되었고, 그 결과로 대구교구(대구대목구)의 분리가 현실화되었다.

1911년 4월 8일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대구교구 설정을 공표하는 교황령이 반포되었다. 그 안에는 새 교구의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너무도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다가, 특히 다행히도 신자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반면 조선 지방을 한 대목구가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대목 뒤편 형제가 저 광대한 지역의 남부를 새 대목구로 설정하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다는 건의를 해왔다. 그래서 하느님의 더욱 큰 영광과 신자들의 영적 이익을 지향하는 이러한 의견을 지대한 호감을 갖고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조선대목구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분리시켜 그것을 대구부의 명칭을 따라 대구대목구로 설정하고, 이에 권리와 특전과 영예를 부여하는 동시에 종래의 포교지에는 서울대목구라는 명칭을 붙이고, 새로운 포교지를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회원들에게 위탁한다.”⁵⁸

교황령에 나타나듯이 대구대목구의 관할구역은 ‘경상도와 전라도(제주도 포함)’로 명시되었다. 이는 한국의 행정구역에 따라 교구를 분리한 형태인데 당시의 사정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 땅에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이후 백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교우들은 도시나 행정기관에서 먼 지역인 산간지대나 바닷가 외진 지역에 자리를 잡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이러한 지역은 **도道** 혹은 **군郡**의 경계가 되는 곳들이어서 신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도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속해 있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박해 이후 초기에 설립된 본당들은 도나 군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동체 단위별로 묶어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라 교구 혹은 본당을 나눌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구교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접경지대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지역은 신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박해시대 때부터 하나로 묶여 있던 신앙공동체들이 집중되어 있어 행정구역에 따라 분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속해 있으나 오래전부터 전라도의 되재본당과 화산(나바위)본당 관할 아래 있던 진잠, 연산, 은진, 노성, 석성의 다섯 지역은 당분간 대구교구에서 관할하기로 하였다. 이 다섯 지역은 논산과 그 인근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신자 수는 1,457명이었고,⁵⁹ 이를 포함한 대구교구 전체의 신자 수는 26,004명이었다.⁶⁰

19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논산지역 주변에는 공주본당(1897년 설립)과 부여 금사리본당(1901년 설립)이 충청남도에 있었고, 전라북도에는 되재본당(고산본당, 1891년 설립)과 화산(나바위)본당(1897년 설립)이 자리하고 있었다.

평야 지대인 논산지역에는 1920년까지 본당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서쪽과 중앙은 화산(나바위)본당 관할, 남동쪽은 되재본당 관할, 북쪽 일부는 공주본당에 속해 있었다. 논산지역은 위치상 전라북도에 가까운 데다가 이미 설립되어있는 되재본당과 화산(나바위)본당에 속해 있어 정부 행정구역 따라 경계를 나누기가 곤란한 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논산에 새 본당을 설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논산지역은 제도상으로는 서울교구에 속하지만 관할은 대구교구의 본당들에 맡겨졌다.

2. 교구 관할 변경과 본당 설립

논산지역을 대구교구 관할에 둔다는 결정은 두 교구 간에 정식 회합에 따른 것이 아



나라 서울교구장 뮌텔 주교와 대구교구장 드망즈 주교 간의 임시적 합의로 이뤄졌다.⁶¹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 지역 공동체가 본래부터 하나로 묶여 있었다는 역사적 연결성도 있지만 도의 경계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일제강점기 들어 조선총독부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구교구가 설정될 때에도 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경계가 어떻게 그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두 교구의 주교들은 정부 행정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교구 경계선 확정을 유보하고, 몇 해 동안 5개 지역을 그대로 대구교구에 맡겨두고 사목해보기로 하였다.⁶²

두 교구의 주교 간에 이뤄진 합의는 뜻하지 않게 장기화되었다. 정부 행정개편이 확정된 해는 1914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제1차 세계대전에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은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활동하던 한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징집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성직자 부

죽에 직면하였다. 한 신부가 두 개의 본당을 맡는 일도 발생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교구 경계선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19년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돌아와 안정을 되찾고, 1920년 함경도에 원산교구가 설정되자 서울교구와 대구교구 간 경계를 확정해야 할 당위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의 주교 간에 이뤄졌던 임시적 합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어 버린 상태였다. 대구교구에서는 본당 공동체의 유익, 원활한 교통로의 확보 등을 들어 충청남도 5개 지역을 그대로 관할하기를 원했으며, 반면 서울교구에서는 1914년에 확정된 정부 행정개편에 따라 반환하기를 요구하였다.

교통로와 관련하여 대구교구에서는 논산지역을 꼭 필요로 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관할하는 대구교구로서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거점이 될 만한 본당이나 휴식처가 필요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대구에서 전라도에 있는 화산(나바위)본당을 가기 위해서는 경부선을 타고 대전으로 간 후 기다렸다가 호남선 열차로 갈아타고 강경역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⁶³ 또한 되재성당에 가려면 연산역에서 내려 이동하였다.⁶⁴ 이와 같은 여정은 거리도 멀었거니와 아침 일찍 출발해도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할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한때 대구교구에서는 논산지역과 더불어

대구~나바위 여행 경로(1921년 드망즈 주교 일기)

10월 22일 토요일 [나바위] 소세 신부의 사망을 분명히 알리는 전보가 한밤중에 날아들었다. 오후 6시에 대전에 도착하겠다고 전보를 보냈다. ... (중략) ... [대구역에서] 12시 30분 특급을 타고 4시 10분에 대전에 닿았다. ... (중략) ... 역에 있는 간이 식당에 들어가 경분을 보고 식사를 한 다음 강경행 기차를 기다리는 2시간 30분 동안 편지를 썼다.

10월 23일 일요일 어제 저녁 놀미 論山역에서 루블레와, 줄리앙 공베르 신부를 만나고 9시 30분에 강경리 역에 도착하니 내가 타고 온 기차를 타고 안대동으로 가려는 파르트네 신부가 거기에 있었다.

—
 옛 놀뒤편소
 (화지동 김장환의
 집)



어 대전까지도 대구교구에 편입해주기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교구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대구교구에서 시도한 로마 교황청을 통한 중재도 큰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⁶⁵

경계선 확정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교구는 논산에 새 본당을 설립하는 방안을 세웠다. 두 교구 간 경계선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논산지역을 아우를 만한 본당이 없는 상황이 한몫하였다. 1921년을 기준으로 논산에는 576명, 강경에는 534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인근 다른 본당들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새로운 본당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

논산에는 본당이 설립되기 오래전부터 ‘놀뒤편소’가 있었다. 이 공소는 되재본당 출신의 박준호라는 교사 신자가 놀뒤편에 이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누나의 혼배성사를 위해 당시 놀뒤편을 관할하던 나바위본당 베르모렐 신부를 찾아가 집으로 와서 혼배성사를 주기를 청하자 본당신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혼배를 베푸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신부님은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 혼인만을 위해서 나는 갈 수 없지만 다른 신자들을 위해 당신이 공소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⁶⁶

이 제안에 따라 1907년부터 놀뒤편에 공소가 시작되었다. 공소 설립은 되었으나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고 박준호의 집이 곧 공소 모임 장소였다. 이런 공소 운영은 논산에 본당이 설립되어 새로운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본당 설립 후 첫 통계인 1921~192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교우 수가 1,110명이었다. 이 보고서는 1921년 가을부터 이듬해 부활절까지 관공성사를 마치고 1922년 4월 16일에 초대 본당신부가 작성한 문건이다.

1922년 드망즈 주교의 보고서

“... 서울교구는 우리에게서 논산 論山 본당을 되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당은 우리의 교구의 관할지 밖에 있으나, 1911년의 교령에 의해 뫼텔 주교로부터 위임을 받아 우리가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1,100명 이상의 교우들이 우리의 교적에서 빠져 나가, 이웃 교구 교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새로운 영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총 교우수가 작년보다 576명이나 적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줍니다.”

1922년 공소 현황

공소 옛 이름과 주소			공소 새 이름과 신자 통계			
공소명	주소	별칭	공소명	신자수	옛 명칭	
육정	論山 旭町		논산	논산	놀뫼	
신기	論山 夫赤 新寄	제밭		부인	39	신기
석종	論山 上月 石宗	돌배미		석종	55	돌분이
하리	論山 城東 下里			삼산	25	하리, 불암 통합 ?
불암	論山 城東 弗岩			강경	145	
강경	論山 江景			금정	42	?
잣디	論山 彩雲			계장	30	?
등리	論山 恩津 登里			연서	113	
연서리	論山 恩津 蓮西里	은진읍		동산	27	독각골
독각골	論山 九子谷 東山里			무동	19	
무동	論山 九子谷 金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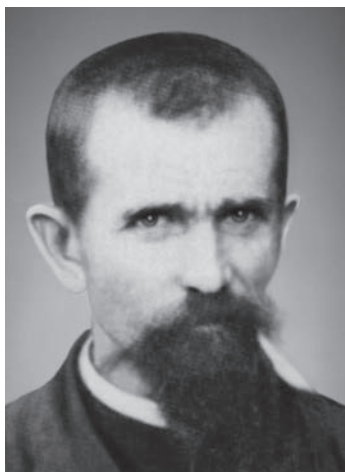
죽평	論山 九子谷 山陽里			죽평	30	
쇠목	論山 九子谷 中山里		논산	중산	122	쇠목
갈매울	論山 可也谷 木谷里			목곡	171	갈매울
한삼내	論山 伐谷 陽山里			양산	60	한삼내
장바탕이	大田 杞城 五里		대전	오리동	85	장바탕이
				원정	18	?
			신자 합계		1,110	

위의 두 보고서는 본당신부가 모두 1922년에 작성했는데 좌측 표는 공소의 이름, 주소, 공소의 또 다른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우측 표는 공소 이름뿐만 아니라 성사와 영성체 현황 등 전반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지만 하나(좌측)는 공소 이름이 옛날 그대로 적혀있고, 다른 하나(우측)는 바뀐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 작성되었다. 1914년 정부 행정개편 이후 공소의 고유한 명칭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3. 초대 본당신부의 활동

1921년 6월 파리외방전교회 루블레Rouvelet, Henri Philippe(1876~1928, 한국명:황혜중) 신부가 논산에 부임하면서 본당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논산본당에 보관

—
루블레(황혜중)
신부



된 자료에 의하면 그는 전경현(베드로)과 다른 복사와 함께 공주에서 논산으로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공소로 사용하던 박준호의 집에서 다음 해 6월까지 살면서 성당과 사제관을 건립하고 부창리에 땅 2,046평을 매입하였다.

논산본당의 주보는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로 정해졌는데 루블레 신부의 신심 때문이었다.

“이 성당은 루르드의 성모께 봉헌되었는데, 본당의 설립자인 루블레 신부가 루르드의 성모를 주보 성인으로 정하고 그 성모님께 부지 매입 성공을 부탁했었습니다.”⁶⁷

초대 루블레 신부의 사목 경력은 논산본당이 초기에 자리 잡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1900년 6월 24일 사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한 그는 말을 배우기 위해 개성에 있는 공소로 보내졌다. 어느 정도 말을 배우게 되자 그는 1901년 개성본당 초대 주임이 되었고, 1909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공주본당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프랑스로 징집되어 5년간 군 복무를 하였다. 1919년 조선으로 돌아와 다시 공주로 복귀하여 활동하다가 1921년 논산본당이 신설되자 초대 주임이 되었다.

루블레 신부가 공주에서 활동한 경력은 공주본당 구역에 살던 신자들이 논산본당으로 유입되는 요인이 되었다. 공주 산간지역에 살던 교우들 중 상당수는 조선 시대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배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담배 농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교우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통제는 여러 형태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었다. 1908년 일제가 목재 약탈을 목적으로 삼림법을 강제하고, 1909년에는 연초세법을 제정하여 담배 경작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1918년부터는 담배 농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였다.⁶⁸ 이렇게 되자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공주지역 교우들이 루블레 신부가 이동한 논산으로 이주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그들은 강경과 논산 일대, 나아가 군산까지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⁶⁹ 공주 교우들의 논산 유입은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루블레 신부의 평가에 의하면 평야 지대의 논산 교우들보다 산골에 살던 공주 교우들이 더 순수하고 신앙이 깊었다고 한다.

루블레 신부는 새로 부임한 이후 1년간 판공을 치르고 나서 1922년에 논산본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을에 논산읍을 제외하고 13개 공소를 방문했습니다. 한 공소는 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3개 공소 가운데 2개의 큰 웅기 마을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4개 공소는 지금 아주 작지만 8~10년 전에는 매우 중요한 공소였습니다. 3개 공소는 하루 공소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개 공소는 이틀 공소이고,

3개 공소는 3일 공소입니다. 논산읍으로 말하면 교우 수가 100명가량입니다. 현재 전체 교우 수는 1,220명인데 여기에 이주자와 봄에 나타날 이입자를 고려한다 해도 최대한 1,200명밖에 안될 것입니다.”⁷⁰

교우들의 상태는 불안정하였다. 삼림법에 의해 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게 되자 웅기를 굶던 교우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어 공소가 작아졌고, 평야 지대 교우들은 열심히 못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가 많았다. 또한 강경과 논산에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강하여 신앙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교우들 전체가 가난한 것도 큰 문제였다. 교우들 중 잘사는 가정은 겨우 세 집뿐이고 빛이 없는 집은 기껏해야 12가구였으며 나머지 교우들은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특히 강경에 사는 교우들이 심하여 절반이 집이 없는 상태로 웅기촌을 제외하고는 소작농으로 살아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교우들이 열심히 성당 건축 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교우들의 열성에 힘입어 1922년 들어 낡은 헛간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⁷¹ 이 땅의 구입 과정과 성당 신축에 대해 논산본당에 보관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과수원이었던 이 땅의 주인은 일본인이었고, 매입 과정에서 박준호와 박준철, 두 사람이 특히 많은 애를 썼다. 비용은 뮌텔 주교가 4,000원(25,000프랑)을 보내 주었다. 3개 필지로 된 이 땅은 식산 은행 구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신부와 교우들에 의해서 사들여졌으며 이 매입은 논산 계시란에 192일간 게시되었다. 그 후 즉시 사제관 60평을 신축했고, 은행 창고를 사서 그 재목으로 강당을 현재의 성당 아래 길옆에다 지었는데, 강당이 강풍으로 인해 파괴되어 다시 한국식으로 사제관과 성당을 지었다. 사제관은 현재의 위치에 있었고, 성당은 북쪽 지방의 지붕 형태로 발 한가운데에 있었다.”⁷²

루블레 신부의 기록을 참조한다면 재목으로 쓰기 위해 구입한 은행 창고는 절반은 파괴된 낡은 건물이었다.⁷³ 그 건물의 현 목재를 이용하여 1923년에 새 사제관이 마련되었고 72평짜리 성당도 완공할 수 있었다.

본당에 필요한 건물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교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건강 악화로 논산을 떠나 용산신학교에 머물며 병 치료를 하였다. 이후 그는 대전본당 주임으로 잠시 활동하였으나 건강이 계속 악화하자 프랑스로 돌아가 치료하던 중 1928년 6월 10일, 프랑스 비뉴 앙 로제르Vignes en Lozere에서 선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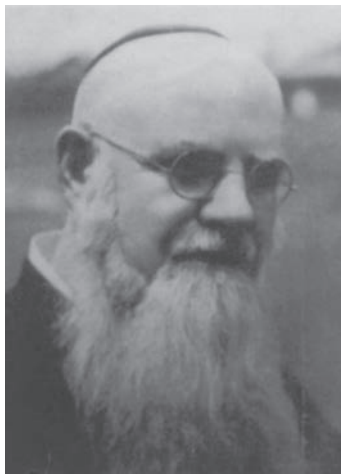
Ⅱ. 본당 설립 초기

1. 줄리앙 공베르 신부의 부임

로데즈Rodez 교구 아베롱Aveyron 지방 캉블라제Camboulazet에서 1877년 9월 7일 출생한 줄리앙 공베르는 1898년 9월 23일 그의 형 앙투안 공베르가 1년 앞서 입학했던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00년 6월 24일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1900년 10월 9일, 형인 앙투안 공베르와 무세 신부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그는 1901년 4월 금사리본당 초대 주임에 부임하였고, 1923년까지 역임했다. 한국명은 공안세孔安世이며, 그의 형인 앙투안 공베르와 구별하기 위해 ‘작은 공베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923년 6월, 초대 주임 루블레 신부가 부임한 지 2년 만에 떠나고, 제2대 주임으로 금사리본당에 있던 공베르 신부가 논산으로 발령받았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발령에 두 신부 모두 놀라서 교구장 뒤편 주교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다.⁷⁸

—
공베르(공안세)
신부



이는 루블레 신부의 건강 악화가 인사발령의 원인이었다.

한편 금사리본당에는 새로 서품받은 박동헌 신부가 공베르 신부의 뒤를 이어 부임하였다. 박 신부는 6월 16일에 금사리로 도착하였는데 그의 공식적인 지위는 공베르 신부의 보좌였다. 때문에 박 신부는 1년간 금사리본당을 맡으면서 중요한 결정사항들은 공베르 신부의 허락을 받았으며 생활지도도 받았

공베르 신부에 관한 증언

1) 박경래 요아킴(1932년생)의 증언

공 신부님은 혼배를 앞두고 꼭 찰고를 하셨다. 문답 찰고를 잘못하면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연기를 주셨다. 혼배공시를 이미 붙였을 경우 거기에 기록된 날짜를 지우고 연기된 날짜로 수정할 정도였다.

우리 어려서는 주일마다 문답 찰고를 했다.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다섯 조목이면 다섯 조목, 세 조목이면 세 조목을 외워 가지고 가서 미사 끝나고 신부님 앞에서 찰고를 했다. 잘못하면 다시 또 하고, 또 해서 다 외울 때까지 하루 종일 성당에 있어야 했다. 찰고는 복사나 교리교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하셨다. ... (중략) ... 견진할 때도 문답을 해야 했다. 견진 문답은 일곱 조목인데 그것 못하면 견진을 주지 않으셨다.

2) 박봉석 안셀모(1928년생)의 증언

나도 320조목 못 외워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셔온 적이 있었다. 한번은 혼배 전에 누군가 문답을 못 하자 공 신부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대신 답해보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안셀모, 이래서 안 되겠다. 네가 대신 장가가.”라고 농담하셨다. 그때는 참 엄했다.

다.⁷⁹ 새 신부여서 곧바로 주임으로 발령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사제가 부족하여 내려진 조치였다. 박 신부의 경우 부제일 때에 루블레 신부를 도와 논산에서 사목 습을 한 경험이 있었기에 논산에 이웃한 금사리로 파견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2. 본당 현황과 과제

1) 본당 내의 공소들

새로 부임한 공베르 신부는 늦가을부터 시작한 첫 판공을 치르고 나서 1924년 봄에 교구장 주교에게 본당 현황을 보고하였다. 그해 교우는 1,453명으로 논산지역은 물론 대전에도 2개의 공소가 있었다. 공베르 신부는 신자들의 교리교육 상태에 중점을 두고 공소와 본당 신자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방문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⁸⁰

① 서평(서편이)

교우 28명, 판공 고해자 20명, 영성체 19명.

웅기촌 공소로 거의 신입 교우들로 이뤄졌다. 교리를 거의 몰라 복사가 온종일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 가르쳐줘야 했다. 회장은 선량한 사람이지만 교리 지식은 부족하다. 교우들은 서로 화목하고, 노름이나 폭음을 하지 않는다.

② 오리동(장바탕이)

교우 113명, 판공 고해자 81명, 영성체 77명.

예전에는 무척 좋았던 공소가 교우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크게 축소되었다. 남아 있는 젊은 교우들 대부분은 노름과 술에 빠져 있고, 각자 행동하며 회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회장 역할을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5~6가구를 제외하고는 큰 발전이 없어 보인다. 아이들은 교리를 잘 모르고 있어 판공 때 복사가 가르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③ 한삼내(양산)

교우 52명, 판공 고해자 36명, 영성체 34명.

신입 교우들이 있는 작은 농촌이다. 아이들의 교리와 글공부가 좀 부족하지만 본분을 잘 지키고 있어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한다. 회장은 교육을 많이 받은 구 교우인데 안타깝게도 제물포로 이사 가야 한다.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10여 년 된 새 교우



에게 세례 주는 권한을 주어 회장을 대신하도록 했다.

④ 쇠목(중산)

교우 118명, 판공 고해자 72명, 영성체자 69명.

대구대목구에 속한 되재본당과 이웃한 마을로 구 교우들이 많이 산다. 산악지대로 예전에는 담배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담배 경작 금지령으로 인해 어렵게 살고 있다. 외교인들과 섞여 사는 큰 마을이어서 교우들이 외교인들 풍습에 젖어 신앙심이 약해지고 있어 회장이 어려움을 겪는다.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 시간이 있으나 아이들이 잘 출석하지 않는다. 고개만 넘으면 되재본당에 갈 수 있으므로 많은 교우들이 그곳으로 주일 미사를 간다. 몇몇 교우들이 노름에 빠져 있고 냉담 중이어서 판공성사를 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교리에 무지하며 외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⑤ 갈매울(목곡)

교우 198명, 판공 고해자 151명, 영성체 151명.

새로 강당을 지은 큰 공소로 주민 200명 모두가 교우들인 옹기촌이다. 좋은 면들이 있으나 너무 적다.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공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교리에 무지하여 참고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예전에 신학생이었던 청년과 30대로

보이는 동정녀에게 교리 학교를 만들도록 했다. 강당이 있는데도 교우들이 한 데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주일 침례를 집에서 바치려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이들은 대개 가정 형편이 부유하지만 돈벌이 궁리만 한다.

⑥ 죽평과 무동

죽평:교우 38명, 판공 고해자 19명, 영성체 19명.

무동:교우 26명, 판공 고해자 12명, 영성체 12명.

두 공소는 구 교우촌이었으나 거의 쇠퇴하였다. 죽평공소는 독각골 교우들과 합쳐서 판공을 치렀다. 독각골공소는 회장이 죽고 한 가구가 옥구로 이사했기 때문에 공소가 없어졌다. 이곳 교우들 중 회장의 아들이 냉담 중이며, 3~4명의 아이들에게 공소 방문 때 급하게 교리를 가르쳤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다른 교우들도 교리에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죽평에서 5리 떨어져 있는 무동공소는 고해자가 무척 적다. 임종을 앞둔 과부 노인 몇 명, 세 식구를 둔 젊은 가장, 두 명의 냉담자 아들을 둔 회장이 공소 교우 전부이다. 교리도 가르치고 교우로서의 본분에 대해 가르쳤지만 맥이 빠질 만큼 효과가 없었다. 가을 판공 때는 그나마 교우가 있었는데 봄 판공 때 와보니 만나기가 어려웠다. 각기 다른 마을에 살고 있어서 고해가 끝나고 모두 흩어져버렸기 때문이다.

⑦ 연서

교우 92명, 판공 고해자 62명, 영성체 57명.

무동에서 20리 떨어진 구 교우촌이다. 공소에 헌신적인 회장과 구 교우 가정 몇 살며, 다른 교우들은 5~10리 떨어진 곳에 사는 새 신자들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기 어렵고, 한 번에 모이기도 힘들다. 논산에서 10리 거리에 있으므로 연서 교우들에게 본당에 와서 주일 미사를 참석하라고 했더니 절반 정도가 그렇게 했다. 회장 아들이 공소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교리 교육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많은 교우들이 군산 근처 옥구나 되재본당으로 이사를 하여서 교우가 크게 감소하였다.

⑧ 잣디

교우 58명, 판공 고해 32명, 영성체 29명.

잣디는 강경역에서 7~800m 떨어진 공소로 큰 외교인 마을 중간에 있다. 최양업 신부의 친척되는 최 씨 일가가 두세 교우 가정과 함께 살고 있다. 교육 부족으로 14~15세 된 아이들이 교리를 잘 모르고 십이단+二端 기도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교우들은 신앙심이 부족하고 생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잣디는 나바위본당과 5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리로 주일 미사를 나간다.

⑨ 강경

교우 174명, 판공 고해자 117명, 영성체 111명.

잣디와 인접한 강경공소는 외교인들 틈에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냉담자도 쉽게 나온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열심한 교우들이 꽤 있다. 올해 공소집 한 채를 마련하였으나 너무 낡아 수리와 증축이 필요하다. 방 두 칸뿐인 집에 많은 교우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경은 나바위와 가까워 그곳으로 미사에 참여하므로 논산본당과는 거의 접촉이 없다. 다수의 냉담자들, 외교인과 결혼한 조당자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어 보여 마음이 슬프다.

⑩ 불암

교우 47명, 판공 고해자 30명, 영성체 28명.

불암공소는 강경공소에서 2km 떨어져 있다. 예전에는 세 개의 큰 교우촌을 형성했었으나 지금은 작은 공소가 되었다.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영적인 면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태다. 복사가 두 차례 교리 공부를 시켰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 교우들은 거의 매년 침수되는 논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강경으로 가서 품을 팔아 어렵게 산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어려운 공소이다.

⑪ 돌분이(석중)

교우 65명, 판공 고해자 46명, 영성체 44명.

돌분이는 공주에서 40리 떨어진 작은 공소이다. 봄에 회장이 공주로 이사를 하여서 그를 대신할 마땅한 교우가 없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데다가 영적인 면에서도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가을과 봄 판공 때 교리를 좀 가르쳤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⑫ 논산(본당 구역)

교우 404명, 판공 고해자 143명, 영성체 141명.

본당 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교우들에게 교리교육과 성체강복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므로 좋은 성과가 있을 듯하다. 25~30명가량의 열심한 여자아이들이 있어 조그만 학교나 유치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당에 파견해주도록 살트르 수녀원에 요청하였다.

가톨릭청년회는 매 주일 회합을 열어 진지하고 교육적인 주제들을 다루며 잘되고 있다. 청년회에서 영구차를 한 대 마련하여 교우들의 장례에 사용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상집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먹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상을 당한 집이 가난할 경우에는 꼭 참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이들을 위한 판도 따로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방황하거나 정구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계획했는데 외교인들도 이에 동참할 정도이다. 교우들은 임종 대세를 주는 일과 연도를 바치는데 열심이어서 냉담자들이 돌아오고, 외교인들도 큰 감화를 받는다.

2) 본당의 과제

공베르 신부가 첫 판공을 치른 후 올린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논산본당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첫째, 사회변동에 따라 교우들의 대이동이 있었다.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초법에 따라 1918년부터 담배 농사가 전면 통제되자 산간 공소에 살던 교우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주로 담배를 재배하며 가난하게 살던 교우들이 일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교우촌을 이루어 잘 운영되던 공소들이 크게 위축되었다. 용기를 구우며 생활하는 교우들로 구성된 공소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았으나 전반적인 위축과 교우들의 이주는 피할 수 없었다.

둘째, 일제강점기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자본주의의 영향이 교우들 생활 전반

에 영향을 미쳤다. 박해를 겪으며 살던 조선 시대에는 재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교우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었다.⁸¹ 생계를 위해서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든 교우들이 다른 지역으로 돈벌이에 나서면서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소홀해졌다. 이는 교리교육의 부실, 노름의 성행 등으로 이어졌다.

셋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우들이 논산과 강경 읍내로 유입되었다. 이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논산본당은 본당이 있는 논산과 큰 도시로 성장하던 강경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다.

넷째, 전라도와 가까운 지역인 강경과 논산 구자곡면 교우들의 이원적 신앙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 간에 경계를 확정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였다. 강경지역 교우들은 거리가 가까운 나바위본당으로, 구자곡면에 있는 쇠목공소 교우들은 산 너머에 있는 되재본당으로 주일 미사에 참례하였다. 그러면서도 판공성사는 논산본당 주임 신부로부터 받았다. 이 문제는 1946년 8월 15일, 강경본당이 신설되어서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베르 신부는 교리교육에 중점을 둔 듯하다. 이 때문에 그는 연례보고서에서 공소와 본당 신자들의 교리 상태를 주로 파악하였고, 그의 복사로 하여금 판공 때만이라도 교리교육에 힘쓰도록 했다. 유능한 공소회장이나 교리 교사, 전교회장을 통해 꾸준히 교육하여 신자들의 신앙상태를 증진시키려 하였다. 본당 내에 설립하려는 여학교도 그 연장 선상에 있었다.

공베르 신부는 또한 본당에서 일할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우선 본당에서 활동할 수녀들의 파견을 요청하였다.⁸² 하지만 그것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1931년(혹은 1932년) 10월 20일에 가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이보다 급하게 남자와 여자 전교회장을 구하려 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쉽게 진행될 수 없었다.

본당 청년회와 이후 강경에 설립된 청년회가 인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다. 이들은 교리교육뿐만 아니라 전례 참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 본당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다. 주일 미사를 화산(나바위)본당으로 참례하던 강경지역 교우들이 논산으로 미사에 참례하도록 주도한 이들이 강경 청년회원들이었다.

새 성당 건립도 중요한 과제였다. 논산 도심으로 교우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1923년에 지은 작은 성당은 금방 포화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부터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건축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1927년 말에 새 성전이 완성되었다.

3. 신사참배 거부 사건

1924년 논산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7월까지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논산에 있는 거의 모든 우물이 말라버렸다.⁸³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 그해 10월 강경에서는 신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경공립보통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에서의 신사참배 강요가 최초로 사회문제로 비화한 경우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강경보통공립학교에는 강경공소와 화산(나바위)본당의 신자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강경 교우들은 논산본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가까운 화산(나바위)본당으로 주일 미사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신자 학생들은 화산(나바위)본당 카다르 Cadars, Joseph Francois (1878~1950, 한국명:강달순) 신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1924년 10월 11일 강경공립보통학교의 신자 학생들이 일본식 연례행사인 강경신사神社 예제일例祭에 참배를 거부하였다. 이날 신자 학생들 26명이 결석하였고, 40여 명은 학교에는 갔으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사실 신자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는 처음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이미 신사참배를 거부해왔었다.⁸⁴ 당시 카다르 신부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지언정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이에 신자 학생들은 신부와 부모의 명에 따라 퇴학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왔다.

강경공립보통학교 교장 미야무레宮牟禮與助는 열렬한 신도주의자여서 매년 중요한 절기마다 모든 학생들을 강경신사에 참배시켰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학생들은 천

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학생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자 일본인 교장은 그리스도교 신자 학생들을 불러놓고 신사에 절을 하지 않을 경우 퇴학시키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카다르 신부는 교우 학부형 대표를 통해 항의했다. 하지만 교장은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천조대신의 신사에 참배해야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내가 주는 교훈을 천주교 신자 학생이라 해서 받지 않아도 됩니

—
카다르(강달순)
신부



까?” 하며 뜻을 꺾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교장은 학부모들을 소환하여 신사참배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의 주요한 덕^德은 ‘복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카다르 신부는, 신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일본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항의서를 교장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신자 학생들도 신사에 참배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10월 16일, 2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 학생 전원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카다르 신부와 공베르 신부는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두 신부는 서울대목구장 뮈텔 주교에게 사건을 알렸고, 조선총독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뮈텔 주교는 총독부로 소환되어 강경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다.

“11시경에 나는 소환되어 총독부에 드브레 주교와 함께 갔다. 오다 씨가 문교국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나가노 씨는 우리에게, 강경 학교에서 도덕상 신사참배 의식에 참석해야 할 천주교 학생들에 관해 프랑스 선교사 측에서 다른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시민 의식에 관한 것이고 결코 종교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천주교 학생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정부 측의 잘 알려진 주장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이에 우리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신사에서 행해지는 이 의식들은 주문, 제물, 제물 봉헌, 경례, 기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12시 15분에야 겨우 나왔다. 점심 후에 나는 나가노 씨에게, 그것이 중대하고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며 오늘 오후에 왜 우리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는지를 그가 잘 생각해 보도록, ‘신사’에 관한 나가사키^{長崎}의 그라시^{Gracy} 신부의 소책자를 보냈다.”⁸⁵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과 결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천주교 측의 입장은 좁혀질 수 없었다. 결국 강경보통 공립학교 신자 학생들의 퇴학 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 당시 학교법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퇴학당한 학생은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대부분 학업을 포기하였고, 일부 학생들만이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한국 안에서 신사참배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강경을
동흥리 30-5)
▶ 이 사건은
천주교,
개신교 신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기념비에는
천주교
학생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4. 소화학술강습소(소화학원) 설치

공베르 신부 재임 당시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1933년 논산 소화학술강습소(소화학원)을 설치한 것이다. 1926년경 공베르 신부는 외교인들과 접촉하면서 1925년에 설립된 중국식 건물에 비인가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박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1932년 10월 20일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논산에 진출하여 논산분원을 설립하였다. 공베르 신부는 넘쳐나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학교에 2개의 교실을 증축했고, 그 옆에 수녀원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유치원 과정에서 탈피하여 1933년 소화학술강습소, 즉 소화학원을 세워 소학교 미취학자들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원에서 맡아 운영하였다. 2명의 한국인 수녀들이 가르치던 소화학원은 당시 비인가였기 때문에 공베르 신부는 학교 인가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법이 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아주 성과가 좋은 조그마한 학교의 인가를 추진 중인 줄리앙 공베르 신부는 “새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가 성공할 것인지? 이미 많은 노력과 돈을 들인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이 학교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명의 조선 수녀들이 작년부터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으나, 교육법이 엄해서 이 신부는 그 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⁸⁶

또한, 공베르 신부는 시약소를 설치하고 수녀들에게 시약소를 운영하도록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고 그 후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⁸⁷

5. 코요스 신부의 임시 부임과 공베르 신부의 재부임

1934년 말에 공베르 신부는 휴가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1934년 6월 서울에 도착하여 안성의 앙투안 공베르 신부 곁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코요스 셀레스탱 C. Coyos (1908~1993, 한국명:구인택) 신부가 임시로 논산본당 주임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폐결핵으로 인해 1935년 9월까지 임시 주임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서울대목구로 이동하여 주교관에서 휴양하다가 1936년 6월 21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다.

1936년 공베르 신부가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여 논산본당에 재부임하였다. 1938년에는 금사리본당 주임으로 부임하던 프로망투 Fromentoux, Emile (1910~1995,

—
코요스(구인택)
신부



한국명:포만수) 신부가 논산본당에 잠시 들려 공베르 신부의 사목활동을 도왔다. 또한 1942년 4월 1일에는 박노열(바오로)이 공베르 신부의 추천을 받아 함경남도 덕원신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 그는 1946년 3월 20일 졸업하고, 1947년 4월 1일 서울 성신대학 신학과를 입학, 1950년 3월 20일에 졸업하고, 그해 4월 15일에 사제품을 받으면서 본당출신의 첫 사제가 되었다.

Ⅲ. 해방 전후의 시련

1. 중일전쟁 이후 시련

1) 전쟁 중의 한국 교회

1937년 7월 7일 만주에서 발생한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 본격화하자 일본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조선에서 노동력, 식량, 전쟁 물자를 강제로 수탈하였다. 한편 유럽에서도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각종 통제를 받는 가운데 협력을 강요당하여 1940년 11월 ‘국민총력 천주교 경성구 연맹’이 결성되었다. 그해부터는 비상시국이라는 이름 아래 전례 거행도 자유롭지 못하여 성탄절을 마음대로 지낼 수 없었다.

“국민총력 천주교 경성교구 연맹에서는 각 가맹 지방 교회 연맹에 통첩을 띄워 연례에 의한 성탄 축하식을 정지하고 그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시국에 대한 강연회나 좌담회를 개최하기를 권장하였음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⁸⁸

사실 성탄절에 대한 제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1926년 12월 25일 소위 ‘다이쇼(大正) 천황’이 사망함에 따라 일본은 천주교의 성탄절 행사를 성대하게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적이 있었다.⁸⁹ 이것은 1940년이 되어서는 성탄 대축일을 경축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 따른 시국 모임을 강요받게 되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말은 천황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여서 일본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천황이 높으시냐, 너희 천주가 높으냐?”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박경래 요아킴(1932년생)의 증언

왜정시대 때 현재 췌뿔학교 자리에 수녀님 6분이 계셨다. 학원을 경영하셨는데 2년은 유치원 과정, 4년은 초등학교 과정이었다. 일본이 망할 무렵에 일본군인들이 와서 수녀님들을 나가라고 엄청나게 괴롭혔다. 회장님들(김석배 씨 아버지 회장, 전덕환 회장, 박 바오로 신부님 아버지 회장) 6분이 와서 군인들을 내쫓았다. 혼도시(일본군의 칼)를 차고 와서 수녀님들을 나가라고 했다. 이유는 조선말을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내가 3학년 때 그것을 봤다. 고약하던 때였다.

일본 애국가를 모르면 기차표도 끊어주지 않았다. 왜정 때는 성당이 지금 동사무소하고 산이 붙어있었다. 공 신부님 계실 때 성당에는 복숭아나무가 15그루 정도, 밤나무가 꽤 차있었다. 성당과 동사무소 사이에는 철조망이 하나 있었다. 동사무소가 그때는 신사였고 우리는 그곳 사람을 ‘일본 중’이라고 불렀다.

해방되고 나서야 서로 사이에 길을 냈다. 부창초등학교를 왜정 때는 ‘고우레스 구쿠닝고’라고 불렀다. 8월 15일 성모승천 날 해방된 후에 학부모들이 수수대를 이고 와서 호미로 파서 여섯 자 길을 냈다.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분리를 해놓았었으니까. 일본에서 쫓겨나온 조선 사람들이 이 길가의 양쪽 언덕에 굴을 파고 살다가 많이 죽어 나갔다. 굴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자는 아니었다. 일본에서 쫓겨 왔던지, 혹은 북한에서 남하한 사람들이었다. 일본인들이 신사에서 나가고 나니 임자 없는 땅이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곳에 공원처럼 그네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8월 15일 성모승천 해방 날이 되면 그네를 띄고 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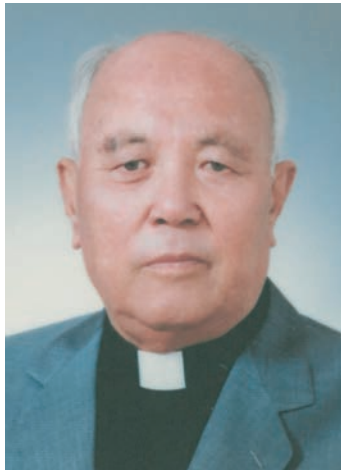
2) 본당신부의 교체

일제의 총동원 체제 안에서 논산본당의 일상이 1940년대 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원하던, 원치 않던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평범한 삶이 허락되지 않았다. 1940년 11월 20일 교구장 라리보 주교가 논산을 사목방문하여 견진성사를 집전하였다.⁹⁰ 이듬해 여름에는 새로 서품된 박고안(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16~2004) 신부가 6월 25일 자로 논산본당 보좌로 발령받았다.⁹¹ 새 신부에게는 일상적으로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던 때이므로 박 신부는 7월 중순에 논산에 부임하였을 것이다. 이때 교회에서 발행된 『경향잡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박고안 신부의 일본식 이름인 ‘宋元英一’로 기재되어 있다.⁹² 일제는 1940년 2월부터 조선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을 가지도록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에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고, 그것을 방관하는 단체는 존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에 천주교 성직자들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폭격하면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연합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과는 적대관계에 있었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서울과 대구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미국 선교사들이 평양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프랑스와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은 적성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되어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가택연금에 당하였다. 이는 각 지역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 신부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논산본당 주임 공베르 신부는 이때부터 본당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다음의 기록들이 당시 상황을 잘 말해 준다.

—
박고안 신부



“「경성, 평양교구에 신부 이동」 거쑤월 하순 경성교구에 신부 이동이 발표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중략)… 논산본당 보좌 방지거 박 신부는 동 주임 신부로 승격되는 동시 전 주임 공 신부는 신병으로 경성본부에서 휴양하게 되었으며, 행주본당과 송화본당은 폐지되는 동시 동 지방은 이웃 지방에서 분할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대화는 제천지방으로 편입되었다.”⁹³

“포교자 거주지 이전: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거주지 이전계를 제출함은 다음과 같다. 1942년 9월 3일, 구거주지 충남 논산군 은진면 해창리, 신거주지 경성부 명치정, 포교자 줄리앵 공베르 Julien Gombert.”⁹⁴

위의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베르 신부는 주임이면서도 본당에 머물지 못하고 은진면 해창리에 머물러 있다가 ‘신병상의 이유’로 서울교구청으로 이동하여 휴양하였다. 이때부터 공베르 신부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다른 프랑스 신부들과 함께 연금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베르 신부가 서울로 이동함에 따라 보좌였던 박고안 신부가 1942년 5월 하순, 논산본당 제3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박 신부가 논산본당 주임이 되고 나서 5개월 후인 10월 29일, 노기남(바오로, 1902~1984) 주교가 논산본당을 사목방문하였다. 그해 1월 3일 서울교구 새 교구장으로 임명된 노 주교가 관할의 모든 본당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길이었다. 이 방문 때의 기록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경성교구에 교구장 순시 일자」 경성교구 오카모토 교구장께서는 관내 교우들의 총후보국의 실상과 각 교회 형편을 시찰하시는 동시에 건진 예비자들에게는 건진성사를 영하여 주시기 위하여 총력연맹 이사장 남현씨를 동반하시고 경성교구 일부를 순시하시기로 되었는데 이번 순시하시는 지방과 그 지방에 도착하시는 일자는 아래와 같다.

10월 25일 경성 약현, 26일 대전, 27일 공주, 29일 논산, 31일 부여, 11월 2일 서산, 4일 당진, 5일 합덕, 7일 예산, 9일 공세리, 11일 천안, 12일 환당.”⁹⁵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교회에서 발행되는 『경향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노기남

—
일제강점기
말, 결혼식
사진
성당 출입문
기둥에
“신앙보국
(信仰報國),
국위선양
(國威宣揚)”이란
뜻말이
보인다.



주교를 ‘오카모토岡本’라고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총독부가 마련한 법령에 따라 일본식 이름이 아니면 공식 출판물에 이름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주교 교구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이었음에도, “관내 교우들의 총후보국의 실상과 각 교회 형편을 시찰하시는 동시에 건진 예비자들에게는 건진성사를 영하여 주시기 위하여”라고 명시해야 했다. 마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러 가는 길에 교회의 성사 집전도 겸하여 집행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본당의 관공성사 일정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고 움직여야 했으므로 교구장 주교도 사목방문 일정을 제출하며 방문허락을 받기 위해 일제가 요구하는 명분을 제시해야 했던 듯하다.

2. 전쟁 중의 어려움과 희망

논산본당은 1943년에 한 차례, 194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주임 신부가 바뀌면서 불안정하게 본당이 운영되었다. 이는 1941년 12월 시작된 태평양전쟁이 원인이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본과 미국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맡고 있던 평양교구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곳의 미국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되거나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자 서울교구에서 다른 신부들을 파견하여 부족한 성직자를 보충해주어야 했다. 게다가 서울교구 내에 있던 외국인 신부들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본당을 맡을 성직자가 턱없이 부족해졌다. 결국, 1942년 1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됨과 동시에 몇몇 본당들이 통폐합되었다. 이때 충북 제천과 용소막본당은 원주본당으로, 충남 천안본당은 안성본당으로, 강원도 횡성본당은 풍수원본당으로 병합이 이루어졌다.⁹⁶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 행주본당과 송화본당이 폐지되어 다른 본당에 병합되었다.⁹⁷ 이와 같은 격변은 논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1943년 8월 박고안 신부가 논산을 떠나 서울 성가기숙사로 이동하였다. 성가기숙사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그간 신원식(루카, 1915~1998) 신부가 사감으로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그를 논산본당 제4대 주임으로 발령하고 박 신부가 상경하여 사감을 맡게 되었다.⁹⁸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신 신부가 이동을 신고한 날은 8월 4일이고, 그 역시 忠宗元植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⁹⁹ 신 신부는 어린이 복사단을 대상으로 ‘돈보스코회’를 만들었다. 이 회의 아이들은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공소에도 가서 신부를 도와 전례에 참여하였다.¹⁰⁰

1944년 4월 신원식 신부가 논산을 떠나 서울 동성학교의 신학생들을 담당하기 위해 이동하고, 하우현본당의 황정수(요셉, 1890~1975) 신부가 논산본당 제5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¹⁰¹ 교회 기관지인 『경향잡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정식 인사발령이 틀림없는데 황 신부가 논산본당과 하우현본당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¹⁰²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본당을 한 신부가 겸임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신부들의 추방과 가택연금으로 신부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조치로 판단된다.

같은 해 10월 황정수 신부가 하우현본당으로 복귀하고 조인원(빈첸시오, 1907~1978) 신부가 논산본당 제6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¹⁰³ 조 신부는 본래 서울교구 신부이나 평양교구에 사제가 부족하게 되자 1940년부터 북한지역의 안주본당, 평양 대신리본당에서 사목하다가 서울교구로 복귀하여 논산에 오게 되었다. 그도 역시 관공소에 거주지 이전계를 제출했는데 그 날짜는 11월 21일이고, 창씨개명한 일본식 이름은 岩谷道助였다.¹⁰⁴

이 시기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패색이 점점 짙어지는 때여서 교회 안에도



비상조치가 내려졌다. 한반도에도 미군의 공습이 예상됨에 따라 방공경보가 발령될 경우 각 본당에서 어떻게 미사와 성체 봉안을 해야 하는지 하달되었다.

“경보발령 중 성당에서 행하는 예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 (중략) … 주일이나 기타 침례날에 교우들이 성당에 모인 다음 경보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미사성체나 기타 예식이 시작된 다음일지라도 (가) 곧 미사성체나 기타 예식을 중지할 것이요 신부는 미사성체의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 (나) 교우들은 즉시 해산하여 각자 갈 곳으로 속히 돌아갈 것”¹⁰⁵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1944년 논산본당 교우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르멜 수녀회를 위해 후원금을 보냈다.

“「논산 교우들의 정성」 충남 논산본당 교우들은 경성 해화정 갈멜 수녀원에서 동 수녀회의 근본 취지대로 날마다 많은 희생과 기구로써 성교회를 돕는다는 말을 듣고 크게 고맙게 생각하는 동시 지금같은 시국에 분방인 교구가 됨으로부터는 그들의 드러나지 않는 협력이 더구나 필요할 것이라 하여 자발적으로 1백 2십 원을 동 원에 연조하여 살림에 보태어 쓰기를 청하였으므로 동 원에서도 감사함을 마지 않는다 한다.”¹⁰⁶

1939년 프랑스의 ‘맨발의 가르멜 여자 수도회’ 소속 수녀들이 한국에 옴으로써 한국에도 봉쇄 수녀회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듬해부터 서울 혜화동에 자리를 잡고 수도생활을 시작한 가르멜 수녀회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 한국 교회에 영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설립자들이 외국인들인 데다가 일본인들이 봉쇄 수녀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르멜 수녀들은 감시와 조사를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논산본당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후원함으로써 수녀회에 도움을 주었다.

3. 해방과 강경본당 분리

해방 후 논산본당에서 시급한 일 중 하나는 강경의 본당 설립이었다. 강경지역은 논산지역에 비해 교세 면에서 뒤지지 않은 데다가 강경공소 자체의 역량도 대단하여 청년회 활동이 본당과 비견될 만큼 활발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보면 1943년 논산본당 주임 신원식 신부의 관할에 ‘강경읍 강당’¹⁰⁷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공소 강당이 갖추어져 있었던 듯하다. 더구나 강경은 논산보다는 나바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 신앙생활은 이웃 나바위본당에 의존하고 있어 관할과 활동이 다른 이원적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강경에는 본당이 설립되어야 할 시급함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강경의 분당은 논산본당 2대 주임인 공베르 신부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다.¹⁰⁸ 그는 강경에 성당으로 쓰일 작은 건물을 지어 새 본당 설립 준비를 하였으나 일제강점기라서 실현될 수 없었다. 해방 후 강경지역 교우들의 요청과 논산본당 6대 주임 조인원 신부의 건의에 따라 강경본당 설립이 1945년부터 구체화되었고 이듬해에 결실을 보았다.

강경본당은 논산보다 뒤늦은 1946년에 설립되었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큰 영예를 안고 출발하였다. 강경은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프랑스 선교사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그리고 조선 교우들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항해하여 상륙한 곳이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10월 12일 주일 저녁 강경에 도착하여 교우들이 마련해준 집에서 첫날밤을 보냈다.¹⁰⁹ 이후 김 신부는 한동안 강경에

머물며 활동함으로써 한국인 사제의 첫 사목지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당시 강경을 관할하던 서울교구에서는 19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가 참수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강경본당을 설립하기로 논의한 바 있었다.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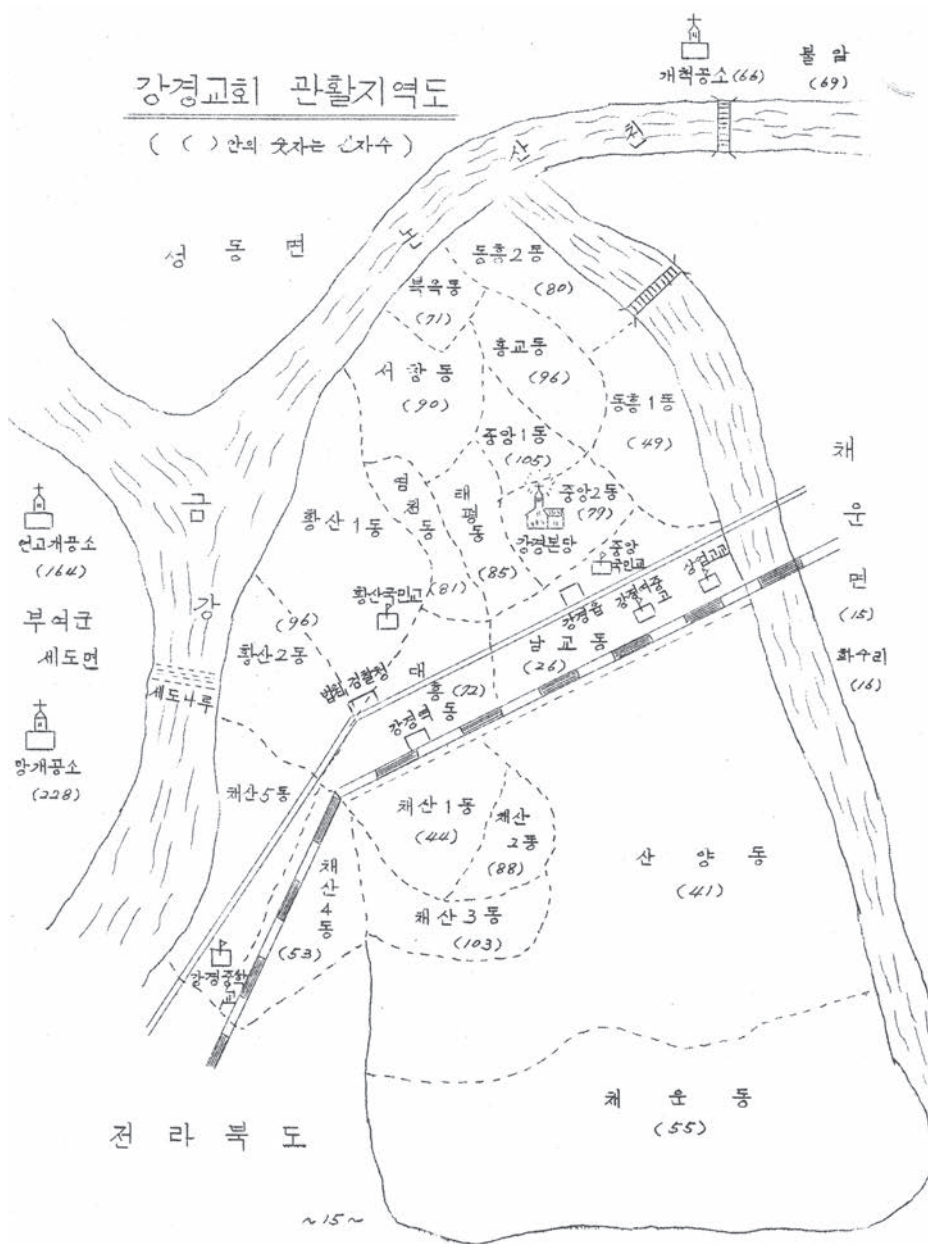
“충남 강경지방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 영웅적 존재인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성품을 받고 한국 교회 제3대 감독 고 주교와 안 신부(후에 한국 교회 제5대 감독으로 주교 위에 오르고 치명하신 이)를 모시고 그해 10월 12일 강경 부근에 상륙한 교회사에서 유서 깊은 곳으로서 19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의 순교 백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이 지방에 교회를 신설하게 되어 전에 일인 8人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교회로 사용하여 오던 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도 퇴락하여 금번 약 4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성당을 짓고 지난 10월 7일, 즉 매괴침례 날에 본당 주임 유리오 목신부의 집례로 강복식이 거행되었다 한다.”¹¹¹

—
박귀훈 신부



성 김대건 신부의 첫 사목지인 강경은 1921년부터 논산본당 관할에 있다가 1946년 한국 교회사 안에서 뜻깊은 해를 맞아 본당으로 거듭났다. 초대 주임으로는 합덕본당 보좌로 있던 박귀훈(요한) 신부가 임명되었다.

(() 안의 숫자는 십자수)



4. 대건중학교 설립

해방과 더불어 논산본당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대건중학교의 설립이다. 대건중학교의 설립은 일제강점기 말 소화학원의 강제 폐원과 해방 이후 미군들의 논산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3~4년경 학생 수가 200명에 육박하던 소화학원은 1944년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강제로 폐원되었고, 학생들은 모두 논산대화공립국민학교(지금의 논산부창초등학교)에 흡수·통합되었다.¹¹² 1945년 4월에는 일본군이 폐원된 학원 건물을 강점하였다. 동년 6월 일본군은 조인원 신부에게 성당과 사제관 양도를 강요했으나, 조 신부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¹¹³

비록 소화학원이 폐원되었어도 샬트르회 수녀들은 논산본당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또한 일제의 패망으로 9월 5일 일본군이 건물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학원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¹¹⁴ 해방 후 학원을 다시 개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논산에 불어 닥친 변화와 본당 주임 조인원 신부의 결정에 따라 뜻밖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1945년 9월 11일 신탁통치에 따른 군정軍政이 시작되면서 논산지역에도 미군

—
소화학원
졸업식



들이 머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논산에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 논산 출신의 유익선(안드레아, 1921년생)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볼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조인원 신부를 찾아가 그 뜻을 밝혔고, 조 신부가 이를 받아들여 1945년 10월 7일 영어 강습소가 문을 열었다. 강습소는 소화학원 네 칸의 교실 중 한 칸을 사용하였다. 논산에 거주하는 청소년 20여 명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강습소에 대한 소문이 인근으로 퍼지면서 한 달이 되지 않아 45명이나 되는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¹¹⁵

영어 강습소의 개원은 곧바로 중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논산에는 변변한 중등 교육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조인원 신부는 이런 염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강력한 반대도 있었다. 학교 건물이라고는 옛 소화학원으로 쓰던 네 칸의 교실이 전부인 데다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를 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교구 당국에서도 학교 설립을 반대했고, 재정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교우들도 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본당 신부가 선교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랐다.¹¹⁶

대건중학교 설립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뚜렷한 목적과 더불어 교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대건중학교는 논산본당에 기반을 두어 설립되는 학교이므로 가톨릭 정신에 맞는 이상과 그를 구현할 교사들의 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우인 교사가 매우 드물어서 1947년에 가서도 교장이 비신자였고, 15명의 교사 중 3명만이 교우일 정도였기에 학교에서 가톨릭 정신의 구현은 애초부터 힘든 상태였다.¹¹⁷

한편으로 옛 소화학원과의 문제가 있었다. 소화학원은 논산본당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었으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샬트르회 수녀들이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이용하여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게 되면 그간 이뤄놓은 수녀들의 업적이 잊혀질수도 있었다. 실제로 소화학원을 운영하던 수녀들은 논산본당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줄지에 일터를 잃은 수녀들은 본당에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었다.¹¹⁸

본당 안팎의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조인원 신부는 대건중학교를 설립하여 1946년 4월 5일 개교식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학교 설립이 얼마나 서둘러 진행했는지는 당시 발간한 『경향잡지』 기사들이 말해준다.

“충남 논산을 교회에서는 동 교회 내에 신설된 대건중학교를 후원하는 의미로 거 (1946년) 12월 18일경 서울 약현 가톨릭합창단을 초빙하여 당지 극장에서 음악회를 개최 하였는데 장내는 4회 매번 초만원을 이루어 음악회서는 논산에서 처음 보는 성황을 이루 었다 한다.”¹¹⁹

“대건, 성심 양 중학 인가. 그동안 내용,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오던 충남 논산 교회 경영 대건중학은 (1948년) 거월 14일부로 고급 중학으로 인가되었고, 전주 교회 경영 성심학원 은 성심 (여자) 중학으로 인가되어 당시 교회는 물론, 일반사회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 다 한다.”¹²⁰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대건중학교는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부터 했고, 개교 2년이 지난 1948년 8월 14일에 가서야 정식인가를 받았다. 교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교사들의 월급도 제때에 주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후원 행사를 해야 했다. 대건중학교의 초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조인원 신부의 후임자인 생제 신부가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949년 6월 1일에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의 ‘가톨릭’ 학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a. 교사진:교장, 교감, 회계 담당, 그리고 3명의 교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외교인이었으며, 3명의 교우 교사 중 1명의 젊은 교사만 열심히었고 나머지 2명은 그저 물렁물렁한 교우였습니다. 역사 선생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했고, 체육 선생이라는 아주 막된 젊은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선생은 심심하면 한 번 학교에 나오는 식으로 출근하여 제가 보기에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며, 그들이 나쁜 표양을 보이는 것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b. 학생:학생 수는 300명입니다. 그중 몇 명은 아주 모범 소년이나, 불행히도 불량소년들이 많습니다. 불량 학생들은 교우 학생들이나 신자들 그리고 장례 행렬의 성당 진입을 방해하기도 하고 교문을 막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교사들을 비방합니다. 교사 사택을 침입하는 일도 있습니다.

c. 학교 건물:전에 있던 두 채의 학교 건물에 두 개의 교실을 새로 지었는데, 너무나 약한 기둥 위에 무거운 지붕을 올려 교실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졌고 견고하지도 못한 상

연길 주교좌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허창덕 신부 선종

(논산보좌 겸 논산 대건중학교 교사를 역임)



『가톨릭평화신문』 1992년
7월 26일 193호, 14면

“1945년 9월 연길 주교좌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은 허 신부는 약 3년간 팔도구 천주교회에서 사목을 하던 중 다른 사제들과 함께 공산당에 체포됐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의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남한으로 피난해 내려온 허 신부는 1948년 3월 충남 논산성당 보좌 겸 논산 대건중학교 교사로 잠시 재직하다가 그해 7월 성신대학 부속 중학교¹²¹에서 사제 양성의 길을 시작했다.”

태입니다.

d. 재정 상태:금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매달 학비를 규칙적으로 내지 못하나 그렇다고 그 이유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지출은 상당합니다. ‘창설자’가 빈 금고를 채우겠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음악반 학생들을 위해서 유니폼은 있어야 하고, 또 축구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유니폼이 있어야 하고(다른 학교 보기에 ‘체면’ 문제이므로) 등등...”

5. 대전교구 설정의 영향

1948년 5월 8일 대전교구가 설정되기 전 논산본당은 서울교구에 속해 있었다. 대전교구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설정되었기에 프랑스 주교 1명, 프랑스 신부 15명, 한국인 신부 3명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인 세 명은 대흥동본당 주임 오기선 신부, 합덕본당 보좌 한도준 신부, 논산본당 조인원 신부였다. 1948년 8월 충남에 있던 모든 한국인 신부들이 서울교구로 이동했음에도 조인원 신부가 잔류한 데는 대

—
베르트랑
(한성년) 신부



건중학교 때문인 듯하다. 그는 몇 달간 논산에서 더 활동한 후 서울교구로 복귀하여 그해 12월 22일 신당동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¹²²

조 신부의 후임으로 대구교구 왜관본당에서 사목하던 베르트랑 *Bertrand, Jules* (1897~1987, 한국명:한성년) 신부가 논산 주임으로 부임하였다.¹²³ 그는 1949년 생제 신부가 부임할 때까지 6개월가량 사목하다가 공세리

본당 주임으로 이동하였다. 베르트랑 신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는데, 그의 재임 기간인 1949년 5월 15일 교구장 라리보 주교가 논산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논산에 원주교 환영식. 거 5월 15일 주일 논산 성당에서는 충남 교구 설정 이래 처음으로 시찰 오신 원 주교 환영회를 대건중학 강당에서 내빈 다수 참집한 중 성대하게 개최하였던바 동 석상에서 가톨릭학생회원과 돈보스코 소년회원 중 성적 우수한 자에게 원 주교께서 상장과 상품을 주셨다는데 수상자는 학생회 성 방지거, 설 요셉, 전 보스코, 소년회에서는 윤 비리버, 이 요셉, 박 이고나오, 윤 말당 제군이라 한다.”¹²⁴

1894년 프랑스에서 출생한 베르트랑 신부는 논산에 있을 때 나이가 55세에 이

—
청년시절 생제
(성재덕) 신부



르렀다. 당시에는 고령이었기에 본당과 대건중학교를 동시에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1949년 6월 39세의 젊은 프랑스 선교사인 생제 *Singer, Pierre Louis* (1910~1992, 한국명:성재덕) 신부가 새 주임으로 논산에 부임하였다. 그는 본래 참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전본당, 즉 현재의 대흥동 주교좌 본당 주임으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교구장 주교가 마지막 순간에 논산으로 발령했

다.¹²⁵

“교체되는 신부들. 해방 이후 자유와 교통의 길이 열림에 따라 외국인 신부들은 필요에 응하여 고국에 돌아가 휴양하고 다시 들오는데 … (중략) … 전 백동본당 성 신부는 1년 전 불란서에 귀국 휴양하다가 거 5월 7일 다시 귀환하였고, 성신대학 교수 사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본부 교수로 피임되어 거월 중순 인천항을 떠나 불란서로 향하였다 한다.”¹²⁶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생제 신부는 1949년 5월 29일 대전으로 가서 교구장 라리보 주교를 만나고, 6월 1일 자로 논산본당 주임으로 발령을 받았다.¹²⁷ 당시 논산군에는 전체 인구 20만이었고, 군청 소재지 논산에는 2만 명 정도가 거주하였다. 논산본당 신자는 전체 1,500명 정도였고, 그중 800명은 논산 시내에 거주했으며 14개 공소가 있는 상태였다.¹²⁸ 30대 후반의 중견 사제인 생제 신부는 선교 활동은 물론 본당에 산적한 문제들을 직시하며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각처에 복자 침례 … (중략) … 충남 논산 교회 대건중학에서는 26일 오전 9시 동교 직원, 생도 5백여 명이 미사성제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톨릭의 장엄하고 거룩한 예식을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다음, 학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침례인 9월 16일은 뇌염으로 휴교 중이었으므로 그때의 축하식을 이날로 연기하여 거행한 바, 설립자 대리 본당 성 신부의 ‘김대건의 일생’이란 강연은 처음 듣는 외교인들을 크게 격동하였고, 뒤이어 교회 음악의 감상, 순교 시 낭독, 축전 축사의 낭독, 원 주교께서 교장에게 보내신 기념품 전달 등 순서로 식을 마치고, 끝으로 태극 바닥에 ‘대건’ 글자도 뚜렷한 ‘대건 떡’을 전교 학생에게 나누어, 의미 깊은 이 날을 화려했게 지냈다 한다.”¹²⁹